

기사입력 2014/09/15 21:29

인쇄하기

회계·금융전문가 출신 이사 비율...BBCN, 한인은행권 첫 50% 돌파



BBCN 이사회의 회계·금융 전문가 출신 이사 비율이 50%에 달하게 됐다.

BBCN 은행(행장 케빈 김)의 지주회사인 BBCN 뱅콧은 15일 한인 회계법인 'CKP'의 최기호(58·사진) 공동대표와 이스트웨스트뱅크 CCO(최고대출책임자) 출신인 윌리엄 J. 루이스(70)를 이사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최 이사는 감사·자산 및 부채·위험 및 규정준수·비즈니스전략계획 위원회, 루이스 이사는 자산 및 부채·위험 및 규정준수·감사·대출 위원회에 각각 속해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최 이사는 일리노이대에서 회계학 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25년여 동안 이 분야에서 활동하며 전국 최대 규모 한인 운영 회계법인 CKP를 이끌고 있다. 한인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 회장도 역임했다.

이로써 BBCN 이사회는 공인회계사(CPA) 또는 은행 실무 경력이 있는 이사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게 됐다. 최근 한인은행권에서 회계 및 재정, 금융 분야 전문가의 이사 영입이 잦아졌음을 감안해도 <본지 9일자 경제섹션 3면> 전체의 50%는 한인은행권에선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날 현재 총 10명으로 구성된 BBCN 이사회에서 CPA 출신은 3명이다.

최 신임이사와 지난 3월 영입된 회계컨설팅 전문회사 주엘스, 레가스피 앤 컴퍼니 대표 데일 S. 주엘스(63) 박사 외에 지난 4월 공식 선임된 케빈 김 행장 역시 CPA로서 아서앤더슨, KPMG 등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BBCN 이사회의 은행 실무 경력을 지닌 이사는 2명이다. 루이스 이사 외에 지난 5월 영입된 데이비드 P. 말론(63) 이사가 패서디나의 커뮤니티 뱅크 행장 출신이다.

케빈 김 행장은 "두 이사는 BBCN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분야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란 말로 회계·금융 분야 전문가 출신 이사 영입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BBCN 이사 주요 경력

이사	연령	임명연도	주요 경력
김상훈	73	1985	제조·수입업
이정현	72	1985	수입업
정진철	70	1998	수입·도매업
윌리엄 루이스	70	2014	이스트웨스트뱅크 CCO
황윤석	68	2007	프린팅 비즈니스
김영석	65	1998	물류·배송업
데일 주엘스	63	2014	CPA·회계법인 공동대표
데이비드 말론	63	2014	커뮤니티뱅크 행장
케빈 김	58	2008	CPA·변호사
최기호	58	2014	CPA·회계법인 공동대표

다른 한인은행들도 최근 전문적인 경영을 위한 이사들의 전문성 중시 분위기, 은행 감독당국의 재정보고서에 적힌 수치해독하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이사 영입 권고에 따라 CPA나 은행 출신 이사 영입에 부쩍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개인차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대형 회계법인에서 근무했던 CPA나 은행 고위직 출신 이사는 은행 경영의 전문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

<http://www.koreadaily.com>

POWERED BY **Jo!ns**AMERICA